

## 필드 분과장을 맡으며

### 13학번 강성도

2016학년도 흥이날철 철학과 필드 분과장 11학번 강성도입니다. 철학과 밴드 분과를 맡고 진행하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. 동아리 행사이지만 과 내부에서 인원을 충당하고 축제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악기를 다뤄본 적도 없는 친구들과 합주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분과원들 모두 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준 결과 미네르바의 향연을 성황리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.

준비하는 동안 서로간의 갈등과 의사소통적인 측면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분과장으로서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서로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분과원들도 저를 믿어주고 존중해주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을 인문대학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늘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과 분과의 특성상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의 성공을 보면서 필드가 계속해서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

2016년 흥이날철 철학과 학생회는 일선에서 후퇴하겠지만 계속해서 철학과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물심양면으로 돕겠습니다.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.